동남아시아연구 제 11권 가을호(2001): 165~191

한·태 건국신화의 비교 연구: 주몽 신화와 프라루엉 신화에 나타난 「영웅의 일생」을 중심으로*

김 영 애**

I. 서론

1960년대를 전후하여 한국의 신화(설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한국의 신화에 대한 자료가 많이 수집되었고, 고고학, 역사학, 인류학, 국문학 등 인접분야의 발전에도 힘입어서 큰 진전을 이루었다. 현재는 양적, 질적 어느 면으로 보아도 깊은 연구가 되어 있다. 특히 한국의 대표적인 일대 영웅서사시로 한국문학사상 자리 매김하고 있는 주몽 신화에 대한 연구는 단군신화와 더불어 가장 많은 관심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되었다. 이는 삼국의 신화 가운데 가장 신화적 원형을 유지하고 있고 풍부한 서사성을 지녔으며 역사상 가장 방대한 지역을 지배하던 강력한 국가의 건국시조에 대한 것이며, 북방계 한민족신화의 전형을 이루기 때문일 것이다.

태국에서 설화(니탄차우반 또는 땀난)에 대한 연구는 주로 민속학의 차원에서 연구되었고, 설화의 채록도 아유타야 왕국(1350-1762)의 나라이 왕 때부터 했다고 하나 현 왕조에 와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아유타야 왕국이 망할 때 수도가 미얀마군이 지른 불로 전소되어 당시까지의 역사서나 문학서 등 문화유산 거의 모두가 분실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1782년에 방콕을 수도로 정하며 라마 1세(1782-1809)는 우선 古王都와 古都에 대한 설화를 수집하게 했으며, 이어 라마 2세(1809-1824)도 구전되어 오는 아유타야 왕국 이전의 역사적 사실을 채록하여 북부왕조연대기라 할 수 있는 「퐁싸와단 느어」를 편찬하게 했다. 라마

* 이 원고는 2001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해 이루어졌음.
** 한국외국어대학교 태국어과 교수

3세(1824-1851)는 쑤코타이 왕국에 관한 것을 편찬하게 함과 아울러 당시까지 수집된 내용을 중심으로 역사서를 편찬하게 했다. 그 후 역대 왕들은 이 역사서에 새로 발굴해 낸 내용을 보충하였다.

라마 6세(1910-1925)는 계몽군주의 입장에서 전개한 민족주의 운동의 일환으로 태국인에게 정신적인 자긍심을 심어 주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쓰어빠(The wild Tiger Corps)"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스스로는 물론 역사학자 및 국문학자와 함께 태국인의 뿌리를 찾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Wyatt 1984: 229-231). 구전되어 오는 민족의 이야기나 설화를 수집하여 문학의 자료로 삼기도 하고 「퐁싸와단」으로 기록하기도 했다.

쑤코타이 왕국의 건국 신화는 1910년을 전후하여 담롱라차누팝 대군에 의해 재채록되었는데, 라마 6세는 이 설화를 소재로 희곡 「르엉 프라루엉」을 써서 초등학교에서 공무원에 이르는 태국인을 위한 '쓰어빠" 교재로 삼았으며, 극장에서 연극으로 공연하게 했다. 태국 국민 중 방콕시민이거나 당시의 지식인들 거의 모두에게 관람하도록 함으로써 민족주의를 고취시켰다.

본 글에서는 태국 역사상 최초의 독립 왕국으로 간주하는 쑤코타이 왕국의 시조, 씨프라인트라팃 왕에 대한 신화와 한국의 주몽 신화를 조동일의 "영웅의 일생"이라는 구조적 차원에서 비교하여 그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내 보려고 한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태국에 관한 부분을 보다 자세히 설명하려 한다.

II. '영웅의 일생'의 구조적 이해

이 장에서는 주몽 신화와 프라루엉[1] 신화의 구조적 이해에 초점을 맞춘다. 그 목적은 두 작품의 공통구조를 발견하고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밝히려는 데에 있다. 이것은 역사적 이해에서 이야기 변이와 시대와의 상호관계를 살피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주몽 신화는 설화작품으로 일정한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모든 요소들이 상호관련을 맺으면서 일정한 구조로 배열되어 인과관계를 형성하며 일련의 법칙을 가지고 연결되어 있다. 주몽 신화에 대한 구조연구는 김열규에 의해 처음으로 시도되었는데, 서구의 유형에 맞추어 스토리 위주로 정리되어 있다(1971: 59).

---

1) '프라루엉'은 '프라'라는 단어와 '루엉'이라는 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프라'는 크게 2가지의 뜻이 있는데, 우선 '승려'라는 뜻의 보통명사로, 보통 승려의 이름 앞에 붙여 사용한다. 이 경우 '프라루엉'은 '루엉 승려'라는 뜻이 된다. 또 하나는 천체나 신, 또는 왕 등의 숭배대상의 이름 앞에 붙이는 접두사인데, 이 경우 '루엉왕'으로 쑤코타이 왕조를 의미하기도 하고 쑤코타이 왕조의 왕을 의미하기도 한다. '루엉'은 '떨어지다'와 '빛을 내다, 밝다, 번성하다' 등의 뜻이 있다.

의미 위주로 주몽 신화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시도는 조동일에 의해 이루어졌고(1971: 169), 그 결과 이야기 전개의 순차적 구조를 분석하여 "귀족적 영웅이야기(영웅의 일생)" 구조를 추출해 내었다. 조동일이 추출해 낸 '영웅의 일생'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은데, 본 글은 이 기본 구조를 수용하는 입장에서 살피려 한다.

1. 고귀한 혈통을 지니고 태어났다.(고귀한 혈통)
2. 비정상적으로 잉태되거나 출생했다.(비정상적 출생)
3. 범인과는 다른 탁월한 능력을 타고났다.(탁월한 능력)
4. 어려서 기아가 되어 죽을 고비에 이르렀다.(기아)
5. 구출 · 양육자를 만나서 죽을 고비에서 벗어났다.(구출)
6. 자라서 다시 위기에 부딪쳤다.(위기)
7. 위기를 투쟁으로 극복해서 승리자가 되었다.(극복 및 승리)

1. 주몽 신화에 나타난 영웅의 일생 구조

고구려 건국 신화인 주몽 신화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측의 것과 중국 측의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중국 측 이야기는 10여 종이 있고 최초의 기록은 동명왕 신화로 1세기경 중국의 〈論衡〉에 나타나 있다. 한국 측 기록으로는 광개토왕릉비, 염모(모두루)묘지의 금석문과 〈삼국사기〉, 〈삼국유사〉 외에 여러 기록이 있다.(지병규 1993: 87-89) 내용은 각기 상이하나 공통된 내용이 각 자료마다 달라 매우 복잡하다. 조동일의 '영웅의 일생' 구조에 맞추어 주몽 신화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고귀한 혈통을 지니고 태어났다.

주몽은 아버지와 어머니, 또는 한쪽(주로 어머니)이라도 고귀한 신분이다. 햇빛(위서계)이나 하늘(논형계)의 감응을 받아 잉태되었으므로 태양의 정령을 받았다. 어머니가 水神 河伯의 딸 유화인 경우는 부계와 모계가 모두 고귀한 신분이다.

광개토왕릉비문에는 "천제의 아들이시며 어머니는 하백의 따님(天帝之子 母河伯女朗)"이라고 명시하여 천신과 수신의 아들임을 말하고 있다. 구삼국사의 〈동명왕본기〉(동국이상국집 권 3 동명왕편)에서는 위서계처럼 감응을 통해 잉태된 천제의 손자, 또는 해모수의 아들이라 했다. 이외에 삼국사기, 삼국유사, 동사강목, 세종실록지리지, 그리고 응제시주 등에서도 태양의 감응을 받아 잉태되었으며, 아버지는 천제의 아들인 해모수, 어머니는 하백의 딸 유화(하백녀)로 나타나

있다.

(2) 비정상적으로 잉태되거나 출생했다.

주몽의 잉태는 대체적으로 태양의 감응이라는 비정상적인 잉태이다. 우발수로 귀양간 유화를 발견한 금와왕이 이상히 여겨 별궁에 가두었는데 "방 속으로 해가 들이비치었다. 몸을 비켜 피하였으나 해 그림자가 또 따라와서 비치었다. 인하여 태기가 있더니 (왼쪽 겨드랑이로) 한 개의 알을 낳았는데 크기가 닷 되쯤이나 될 정도였다"라 했다. 이것은 주몽의 잉태가 태양의 빛에 의한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출생은 울음소리가 매우 크고 골표가 영웅답고 기이했다는 정상적인 경우(논형계, 구삼국기)와 난생의 경우(위서계, 광개토대왕릉비문, 구삼국사, 삼국사기, 삼국유사, 세종실록지리지, 응세시주)이다. 난생의 경우 따뜻한 곳에 두었더니 알을 깨고 사내아이가 나왔다(위서계, 삼국사기, 삼국유사) 또는 한 달만에 알이 열리고 사내아이가 나왔다(구삼국사) 등 스스로 알을 깨고 나왔음이 나타나 있다. 난생은 위대한 인물, 탁월한 능력을 가지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이 난생적 변용은 동사강목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3) 범인과 다른 탁월한 능력을 타고났다.

주몽의 탁월한 능력은 활을 잘 쏘는 것이다. 이 능력은 광개토대왕릉비문 외의 전편에 다 나타나 있는데 한 개의 화살로 많은 짐승을 잡을 정도로 뛰어났다(위서계), 생 후 한달(며칠)도 안되어 활을 쏘기 시작했는데 백발백중이었다(구삼국사), 겨우 나이 일곱에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쏘니 백발백중이었다(동사강목, 삼국사기, 삼국유사)고 하고 있다.

나이가 들자 힘과 재능을 겸비하였으며, 주몽의 신이력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구삼국사), 죽은 비둘기를 물을 뿜어 살린 능력과 비둘기의 위 속에 잃은 보리씨가 있음을 알아보는 능력, 또 흰 사슴을 잡아 蟹原에 거꾸로 매달아 놓고 비를 내리게 한 능력, 그 물을 채찍으로 그어 물이 줄어들게 한 능력 등등이 있으며, 송양과의 대결에서 비류국에서 훔쳐온 鼓角을 검게 칠해 오래된 것으로 보이게 하고 썩은 나무로 궁궐기둥을 하여 비류국보다 더 오랜 나라로 보이게 함으로써 비류국의 도전을 물리치고 항복을 받아내는 등 남보다 뛰어난 지혜까지 겸비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4) 어려서 기아가 되어 죽을 위기에 놓였다.

주몽은 인간으로 태어난 경우는 물론 난생인 경우도 기아의 위험을 겪는데, 기아의 횟수가 많아질수록, 또 알을 깨뜨리려는 행위(위기)가 많아질수록 주몽의

영웅성과 신성은 더욱더 증가된다. 영웅은 나이가 어리다해도 기아라는 극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으며, 영웅이 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으로 문학적 변용을 겪는 것이다.

부여왕은 시비가 임신하자 죽이려고 하였고(위략) 인간으로 태어난 주몽을 돼지우리, 마굿간 등에 버린다(2번, 논형계). 알을 낳은 것은 상서로운 일이 아니라 하며 금와왕은 마굿간, 깊은 산 속에 버리거나(2번, 구삼국기) 또는 개, 돼지의 먹이로, 길 복판에, 들판에, 마지막에는 왕이 깨뜨리려고 했다(4번, 위서계, 삼국사기, 삼국유사). 그러나 동사강목에서는 기아의 모티프가 나타나지 않는다. 굳이 위기를 만들어 낸다면 주몽의 뛰어난 활솜씨로 인해 후환을 없애기 위해 제거하자는 대소의 건의가 첫 번째 나타나는 위기라고 할 수 있다.

(5) 구출·양육자를 만나서 죽을 고비에서 벗어났다.

주몽은 돼지우리에서, 마굿간에서도 돼지와 말의 보호를 받고(논형계), 또 인간이 알을 낳는 것은 상서롭지 못하다 하여 알을 마굿간에 버렸더니 말들은 밟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깊은 산 속에 갖다 버렸더니 온갖 짐승들이 와서 보호했고, 흐린 날씨에도 알 위는 항상 햇빛이 비치어 있었다. 그래서 유화에게 알을 돌려주었다.(구삼국사) 개, 돼지에게 주었더니 모두 먹지 않았고 또 행길 한복판에 내어 버렸더니 마소가 피해 다니고 후에는 들판에 내어버렸더니 새들이 날개로 덮어주었다. 왕이 쪼개려고 했으나 깨뜨리지 못했다. 인간의 무지와 한계에 몰린 금와왕은 결국 그 알을 유화에게 돌려주었다(위서계, 삼국사기, 삼국유사).

위의 경우 개, 돼지, 말, 새 등은 구출에 도움을 준 존재로 나타나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 "천명은 죽지 않도록 되어 있으므로 돼지와 말이 구명함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인정하고(논형계) 거두어 길렀다. 그러나 동사강목에 나타난 위기는 부여국의 탈출로 벗어난다.

(6) 자라서 다시 위기에 부딪쳤다.

성장하면서 나타나는 주몽의 뛰어난 능력으로 인해 여러 번의 위기를 겪는다. 금와왕의 아들들이 시기하여 죽이려는 위기에 봉착하고, 이를 피해 남쪽으로 피신하는 과정에서 강에 배가 없어 다시 위기에 봉착하는 것이 기본이다.

논형계에서는 2번의 위기가 나타난다. 첫 번째 위기는 활을 잘 쏜 까닭에 나라를 빼앗길 가 두려워한 부여왕이 주몽을 죽이려 한 것이며, 이를 피해 주몽이 달아나는데 엄시수에 이르렀을 때 다리도 없고 강을 건널 배도 없어 2번째 위기에 부딪친다.

위서계와 삼국사기, 삼국유사에서는 모두 4번의 위기가 나타난다. 즉 금와왕의

아들 대소가 "주몽은 보통 인간의 씨도 아니요, 神勇이 있어 범상치 아니하니 속히 도모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환이 있으리라"하며 주몽을 죽이기를 요구한 것(위기 1), 왕이 말을 맡아 기르게 하고 그 뜻을 시험한 것(위기 2), 결국 금와왕의 신하들이 주몽의 신기에 두려워한 나머지 주몽을 없애려고 한 것(위기 3), 이에 탈출을 결심한 주몽이 烏伊, 摩離, 陝父 등의 세 사람과 엄표수(개사수, 압록의 동북쪽에 있음)에 이르러 건너려 하니 다리도 배도 없어 추격해 오는 군사에게 붙잡힐 위기에 놓인 것이다(위기 4).

구삼국사, 세종실록지리지, 응제시주에서는 위서계보다 더 어려서부터 위기를 맞고 극복함으로써 주몽을 더욱더 신격화하고 있다. 동사강목에는 위에서 언급한 위기에 이어 말 기르기, 신하들의 살해도모, 그리고 개사수 渡江 위기는 동일하게 나타난다.

(7) 위기를 투쟁으로 극복해서 승리자가 되었다.

기본적으로 나타나 있는 2번의 위기를 주몽은 구조자(동물 포함)의 도움으로 극복한다. 첫번째 위기는 어머니의 도움으로 탈출함으로써 위기를 모면하였으며, 엄시수 위의 경우에서는 활로 물을 치니 물고기와 자라들이 떠서 다리가 되어 건널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물고기와 자라들은 곧 흩어져서 추격해 오던 군사들은 건널 수 없었다(논형계). 이 위기 극복은 자력에 의한 극복이라고 보기 어렵다. 어머니의 도움도 그렇고 물고기와 자라의 출현은 어머니 유화가 수신 하백의 딸이었으므로 외손에 대한 외조부의 배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위서계와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나타난 위기 중 위기 1은 태자의 간을 금와왕이 듣지 않고 주몽을 노비처럼 부림으로 해결되었고, 위기 2는 주몽의 지혜로 모면하여 도리어 준마를 얻게 되는 행운의 기회로 사용하였으며, 위기 3은 유화의 귀띔으로 탈출하며, 위기 4는 개사수에서 채찍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나는 천제의 손이요 하백의 외손으로서 지금 난을 피해 여기 이르렀으니 皇天后土는 나를 불쌍히 여겨 급히 舟橋(배다리)를 보내소서"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활로 물을 치자 물고기와 자라들이 떠올라 다리를 이루어 건널 수 있게 함으로써 극복하게 된다. 위기 1과 위기 3은 타력에 의한 위기극복이며, 위기 2는 자력극복, 그리고 위기 4는 논형계보다는 자력극복의 양상과 아울러 신이력이 나타나 있다. 이 신이력은 구삼국사에서 더 분명하다.

그 결과 주몽은 비수가에 고구려를 건국하였다. 그 후 40세가 되던 추구월에 왕은 하늘로 올라가고 내려오지 않았다. 태자는 주몽이 남긴 玉鞭으로써 용산에 장사지냈다(구삼국사). 40세에 사망하여 용산에 장사지내고 동명성왕이라고 하였다(삼국사기).

2. 프라루엉 신화에 나타난 영웅의 일생 구조.

태국의 〈퐁싸와단 찬까오〉에 의하면 쑤코타이 왕국에 "프라루엉"이라고 불리는 뛰어난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무엇이든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는 신통력이 있었다(Damrongrajnuphab 1966)고 한다. 이 사실은 주변국의 역사서 - 〈몬(Mons)史書〉과 〈란나치앙마이 史書〉를 비롯하여 〈싸얌기록집〉, 〈친깐라말리니〉, 〈씽할라빠띠마껀(씨힝카니탄)〉, 구비서사시 〈라차티랏〉 등등에도 나타나 있다(Chaiyawanichaya 1993: 15-23).

프라루엉 설화는 〈퐁싸와단 느어(퐁싸와단 1권, 이하 느어本)〉와 〈퐁싸와단 담롱라차누팝(이하 담롱本)〉, 치앙마이의 승려인 쫄라윳타까라웡(이하 승려本)이 채록·편집한 설화(퐁싸와단, 40-41권)에 나타나 있다. 〈느어본〉과 〈담롱본〉에는 건국시조로 생각할 수 있는 프라루엉에 대한 기록이 각각 두 개씩 있다. 하나는 "르엉 아룬 꾸만(아룬 꾸만 설화, A본)"이고 또 하나는 "르엉 프라루엉 쑤워이남(물조공하는 프라루엉 또는 프라루엉 컴담딘, B본)"이다. 퐁싸와단 41권에도 또 하나의 이본(퐁싸와단 톤부리, 이하 톤부리本)이 있어 모두 6개의 이본이 있는데, 이 이본들을 순차적인 서사단락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 아룬 꾸만 설화(A본)

① 하리푼차이의 왕인 아파이카미니 왕이 카오야이에서 계를 지키며 수행한다.

② 더운 날씨를 피해 서늘한 곳을 찾아 산 속으로 갔던 바단 왕국의 왕녀인 낭낙[2]은 수행중인 왕을 보고 흠모한다.

③ 인간의 모습으로 현신한 낭낙은 7일(어떤 본은 2일)간 왕과 즐기고 헤어진다. 이때 왕은 정표로 붉은 옷과 반지를 준다.

④ 낭낙은 그후 바단 왕국으로 돌아갔으나,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다. 아이의 안전을 위해 왕이 수행하던 곳으로 가서 아들을 낳고 아들 옆에 반지와 붉은 옷을 놓고 자기 나라로 가버린다.

⑤ 사냥꾼이 지나다 울고 있는 아이를 발견하고 데려다 기른다.

⑥ 아이는 자라면서 신기한 징후를 나타냈는데, 이 소문이 왕의 귀에 들어간다.(담롱본)

---

2) '낭'은 여성을 의미하는 접두사, '낙'은 머리에 벼슬이 있는 전설에 나오는 상상의 커다란 뱀으로, 용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낙 왕국은 바단에 있다. '바단'은 땅의 맨밑을 흐르는 지하수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낭낙은 성별이 여성인 낙을 의미한다. 낙의 모양은 용과 비슷한 상상의 동물인데, 머리에 관모양의 돌기가 나있으며, 변신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강한 독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Chiangmai University, Peunthan kanan Wannakhadi Thai(태국문학에 대한 이해), Chianmai, Chiangmai University Press, 1975, pp. 183-190 참조

⑥' 왕궁을 짓는데 사냥꾼이 아이를 데리고 부역에 나간다.

a) 사냥꾼은 햇볕을 피해 그늘을 찾아 아이를 옮겼다.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왕이 사냥꾼에게 묻는다.(느어본)

b) 햇볕을 피해 아이를 성벽 밑의 그늘로 옮기자 성벽이 이리저리 흔들렸다. 기이하게 생각한 왕은 사냥꾼에게 묻는다.

⑦ 사냥꾼은 아이를 데려다 기르게 된 경우를 말하며 반지와 붉은 옷을 보인다.

⑧ 왕은 자기 아들임을 알아보고 "아룬 꾸만"이라고 이름짓고 아들로 기른다.

⑨ 아버지는 이웃의 딸만 있는 씨쌋차나라이 왕국에 매파를 보내 청혼하여 아룬 꾸만과 결혼시킨다.

⑩ 장인이 죽자 왕이 된 아룬 꾸만은 쑤코타이까지 영토를 확장하여 쑤코타이 왕국을 세운다. 이때부터 그는 "프라루엉"이라고 불렸다.

⑩' 아룬 꾸만은 씨씻차나라이를 정복하고 나라를 다스렸는데, 국민 모두가 평안하였다. 백성들은 그를 "프라루엉"이라고 불렀다.

⑩"프라루엉은 중국식 연호 사용을 폐지하고, 동생과 함께 중국에 가서 신이력을 보이자 중국왕은 프라루엉을 두려워해 귀국 길에 자기 딸을 프라루엉에게 주었고 아울러 도자기 굽는 기술자도 딸려 보냈다.

- 프라루엉 쑤워이남 설화 (컴담본, B본)

① 라워(현재 롭부리)에 있는 '탈레 춥썬(춥썬 호수)'과 그 주변의 백성들을 관리하는 중급 관리 '콩크라오'에게는 "루엉"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② 라워는 이 호수의 물을 3년에 한 번씩 종주국인 크메르 왕국에 조공품으로 바쳤다.

③ 루엉은 전생에서 불타에게 음료수를 만들어 바쳤으므로 말하는 족족 이루어지는 "와짜씻"이라는 초능력을 상으로 받고 태어났다. 11살에 이 초능력을 루엉은 깨닫게 되었지만 비밀에 부쳤다.

④ 아버지가 사망하자 루엉이 주민의 추대를 받아 그 직책을 맡게 되었는데, 물을 바치는 때가 되자 크메르 군대가 물항아리를 싣고 왔다.

⑤ 루엉은 크메르군의 물항아리가 크고 잘 깨졌으며, 또 무거웠으므로 백성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대나무를 촘촘히 엮어 항아리 모양으로 만들게 하고 와짜씻을 이용하여 물이 새지 않게 했다.

⑥ 이를 본 크메르 대장은 왕에게 이 사실을 고하였는데, 크메르왕은 라워에 영웅이 났다고 생각하고 후환을 없애기 위해 암살자를 밀파한다.

⑦ 이 사실을 미리 안 루엉은 북쪽으로 피신하여 쑤코타이에 있는 한 절에서 출가한다.(승려가 된 그를 "프라루엉"이라고 부른다)

⑧ 암살자는 수소문을 하며 추적하여 마침내 프라루엉이 수도하고 있는 절까지 왔다.

⑨ 마침 프라루엉이 절 마당을 쓸고 있을 때 암살자가 나타나 프라루엉의 소재를 묻는다.

⑩ 루엉은 신이력을 넣어 "이곳에 있으면 내가 찾아오겠오"라고 하자 그 암살자는 돌이 되어 그 자리에 붙어버렸다.

⑪ 왕이 사망한 후 쑤코타이 백성들은 신이력을 가진 프라루엉을 왕으로 추대하였는데, 이 왕이 바로 씨인트라팃왕으로 쑤코타이 왕국의 시조이다.

- 프라루엉 설화(승려본, C본)

① 쑤코타이 왕국의 왕이 경치가 좋은 곳에서 쉬고자 높은 산인 카오루엉으로 갔다.

② 용왕의 딸인 낭낙도 이곳에서 작고 예쁜 뱀으로 변신하여 지상의 땅뱀과 어울리고 있었다.

③ 이를 우연히 목격한 왕은 그 뱀이 보통 뱀과는 달리 목과 버슬이 빨갛고 머리에 관을 쓰고있어 지체 높은 뱀이라고 생각하고 하찮은 땅뱀과 어울리는 것은 그 예쁜 뱀의 신분에 맞지 않을뿐더러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두 뱀을 떼어놓는다.

④ 이에 수치심을 느낀 낭낙은 앙심을 품고 아버지 용왕에게 왕이 자기에게 무례하게 했다며 죽여달라고 애원했다.

⑤ 애지중지하는 딸의 말을 듣고 화가 난 낙왕은 도사로 변신하고 왕을 찾아가 넌즈시 진상을 파악하고 딸을 꾸짖고 왕의 종이 되어 시중을 드는 벌을 내린다.

⑥ 낭낙은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재색을 겸비한 미인으로 변신하고, 왕에게 사죄한 후 왕을 섬기며 왕의 사랑을 받았으나 일주일만에 왕은 일주일 후에 예를 갖추어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하고 환궁했다.

⑦ 환궁한 왕은 밀린 일 등으로 바빠 깜빡 잊었다가 나중에 데리러 갔으나 낭낙은 없었다. 왕은 3일간 헤매며 찾다가 낙담하여 환궁하였다.

⑧ 한편, 왕을 기다리던 낭낙은 일주일이 지나도 자신을 데리러 오지 않자, 실망하여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다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다.

⑨ 낭낙은 시냇물 복판에 왕에게서 정표로 받은 옷을 깔고 반지를 올려놓은 후 그 위에 신이력으로 뱃속에 있는 핏덩어리(태반? 아이?)를 거품과 함께 토해놓고 천지신명과 지신에게 자식의 안전을 빌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⑩ 마침 피비린내를 맡은 두꺼비 한 마리가 반지와 함께 핏덩어리를 삼켜 버렸는데, 낭낙의 독성으로 전신이 마비되어 물 속에 잠겨 있었다.

⑪ 그 산에는 냇가에서 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는 노부부가 있었는데, 그날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나 냇물에서 붉은 옷을 발견하고 챙겼다.

⑫ 그리고 그 근처에서 두꺼비를 보고 이 두꺼비 때문에 물고기가 도망갔다며 두꺼비를 죽여 화풀이를 하려고 하자 두꺼비가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⑬ 두꺼비가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신기하게 생각한 부부는 두꺼비를 데려다 자식처럼 길렀다. 그물에 두꺼비를 담아 집에 오는 길에 두꺼비를 땅에 떨어뜨렸으므로 '떨어지다'라는 뜻의 '루엉'이라고 이름지었다.

⑭ 하루는 부부가 외출에서 돌아와 보니 맛있는 밥상이 차려져 있었다. 그후에도 계속 그랬다. 이를 궁금하게 생각한 노부부는 나가는 체하고 몰래 숨어서 집안을 살폈다.

⑮ 두꺼비속에서 어린애가 나와 밥상을 차리는 것을 보고 부부는 두꺼비껍질을 태워버렸다.

⑯ 루엉은 자라면서 신이력이 늘었다.

⑰ 왕이 궁전을 짓기 위해 백성들에게 대나무를 공출하였다.

⑱ 루엉은 신이력으로 연로한 부부를 도와 대나무를 운반하였으며, 궁전을 짓는 일에 동원된 아버지를 따라 갔다.

⑲ 궁전을 짓는데 아무도 대나무 기둥을 곧바로 세울 수 없었으나 루엉은 신이력으로 대나무 기둥을 세웠으므로 궁전을 지을 수 있었다

⑳ 이 신이력을 왕이 듣고 루엉 가족을 불렀는데, 이때 루엉은 붉은 옷을 입고 반지를 옷깃에 매달고 갔다.

㉑ 왕은 루엉이 자신과 낭낙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임을 확신하고 왕자로 삼았는데 성장하여 출가하였다.

㉒ 당시 쑤코타이 왕국은 크메르 왕국의 속국으로 물조공을 하고 있었다.

㉓ 루엉은 백성들이 무거운 물 항아리를 나르는 것을 보고 신이력을 부려 대광주리에 물을 담아 가지고 가도록 했다.

㉔ 이를 본 크메르는 루엉의 능력을 두려워하고 그때부터 물조공을 받지 않았다.

㉕ 크메르 왕은 출가한 루엉이 쑤코타이의 마하탓 사원에 있다는 것을 알고 암살자, 콘디를 급파하였다.

㉖ 콘디는 쑤코타이에 도착하자 자신의 신분을 은폐하기 위하여 땅 속으로 들어가 프라루엉이 있다는 절 마당까지 갔다.

㉗ 프라루엉은 마침 마당을 쓸고 있었는데, 땅속에서 솟구쳐 나오는 사람을 보고 그가 암살자임을 한 눈에 알아본다.

㉘ (콘디가) 몸을 반만 내밀고 프라루엉을 찾자 프라루엉은 '거기에 서서 기다

리라'고 했다. 그 순간 콘디는 하반신이 땅 속에 묻힌 채 굳어져 돌이 되었다.

⑲ 환속한 루엉은 할아버지가 다스리던 쌋차나라이에 가서 다시 왕국을 일으켰으며, 부왕이 사망하자 두 나라를 합병하여 크메르로부터 독립하고 쑤코타이 왕국을 세웠다.

- 프라루엉 쑤코타이(톤부리본, D본)

① 짠타라차 왕은 산으로 사냥을 갔다가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취한다.

② 함께 왕궁으로 갈 것을 청하자 여인은 자기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 세상에 놀러 온 낭낙이라며 거절하고 바단 왕국으로 가 버렸다.

③ 낭낙은 왕의 아이를 임신하였다. 해산할 때가 되자 인간세계로 내려와 야자 만한 알을 낳아 사탕수수 그늘에 두고 자기 나라로 가버렸다.

④ 그 밭의 주인인 노부부가 그 알을 발견하고 신기하게 여겨 집으로 가져갔다.

⑤ 얼마 안 있어 그 알에서 사내아이가 나왔다.

⑥ 노부부는 그 아이를 아들처럼 길렀다.

⑦ 아이가 솜으로 만든 요 위에서 잠을 자지 못하고 울기만 하자 점쟁이에게 물으니 그 아이는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아이로, 용이나 신의 자손이라고 했다. 대나무요를 만들어주면 잘 잘 거라고 해서 그대로 했다.

⑧ 15 세가 되자 신이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⑨ 이 소문이 짠타라차 왕의 귀에 들어가 아이와 부부를 궁으로 불렀다.

⑨' 짠타라차 왕이 궁전을 지으려고 의식을 거행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갔다. 부부도 루엉을 데리고 구경을 갔는데, 의식 중에 루엉이 "내가 여기를 지키는 주인이다" 라고 말하자 궁전의 기둥이 모두 기울고 흔들렸다. 이를 이상히 생각한 왕은 루엉과 부부를 불렀다(⑨에 이어 다른 책에 있는 기록이라며 기록되어 있음).

⑩ 부부로부터 자초지종을 들은 왕은 루엉이 자신과 낭낙 사이에 태어난 아이임을 확인하고 왕자로 삼았다.

⑪ 루엉은 자라면서 신이력을 더 많이 보였다. 나무보고 열매가 되라고 하면 열매가 되고 생선가시를 보고 물고기가 되라면 산 물고기가 되어 물 속을 헤엄쳐 다녔다.

⑫ 루엉은 아버지에게 조상이 같은(같은 종족인) 인타쁘랏 왕국에 아직도 물조공을 하느냐고 묻고 조공을 중지할 것을 권하고, 만일 인타쁘랏 왕국이 공격해 오면 자기가 혼자 나가 싸워 이기겠다고 했다.

⑬ 아버지는 아들의 능력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대로 했다.

⑭ 인타쁘랏 왕은 쑤코타이 왕국이 여러 대를 두고 해 오던 물을 바치지 않자

독립을 도모하 는 것으로 생각하여 아들에게 공격할 것을 명하였으나 루엉에게 패하였다.

⑮ 쑤코타이 왕국은 독립하고 짠타라차 왕이 사망하자 루엉이 왕위에 올랐다.

이상의 6개의 이본을 내용별로 크게 A, B, C, D, 4 편의 이본으로 나누어 위 표처럼 정리하였는데, 4개의 이본 서사단락을 중심으로 조동일의 "영웅의 일생" 구조와 맞추어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고귀한 혈통을 지니고 태어났다.

루엉, 또는 프라루엉의 부계는 컴담본(B본)을 제외하고 비록 독립국은 아니라 해도 모두 왕이다. 태국의 북부에 있는 하리푼차이(현재의 람푼, A본)나 씨쌋차나라이(A본의 장인과 C본의 프라루엉의 조부), 쑤코타이(C본, D본)의 왕이다. 모계에 대한 언급이 없는 B본을 제외한 모든 이본에서 루엉의 모계는 인간이 아니라 양서류인 용(낙)으로 바단 왕국의 공주이다. 낙은 상상의 동물로, 용과 유사한 거대한 동물이다. 프라루엉은 고귀한 혈통임에 틀림없다.

B본은 부계가 왕이라는 언급은 없고, ①항-③항에 롭부리에서 병사 300명과 작은 배 100척으로 "탈레 춥썬"호수를 지키고, 매년 또는 3년에 한 번씩 그 호수의 물을 종주국인 크메르 왕국으로 나르는 라워인(롭부리인)을 관리하는 지방관리로 나타난다. 이 호수의 물은 청정하여 크메르왕국에서 왕과 신하간의 충성맹세식 등의 신성한 의식에 쓰이는 성수로 사용된다. 그러므로, 비록 지체가 왕은 아니라도 그가 맡은 임무는 매우 중대하다. 모계에 대한 언급은 없다.

(2) 비정상적으로 잉태되거나 출생했다.

B본에는 루엉의 잉태나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A본에는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났다. 이 사실은 모계(어머니)가 뱀이므로 난생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출산한 것이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다. D본은 난생임을 확실히 했으며, 아울러 루엉의 신이력이나 탁월한 능력을 예견하고 있다. C본은 난생에 대해 확실한 언급이 나타나 있지는 않으나 (13)항의 내용으로 볼 때 적어도 인간태생은 아닌 것이 분명하다. 낭낙은 자기를 맞으러 오지 않는 남편을 원망하며 본국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인간의 아이를 잉태한 사실을 알고 자기의 뱃속에 있는 짐승을 (낭낙의 입장에서는 인간이 짐승일 것이라고 생각해 봄) 아비에게 보내려고 결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이력을 총동원하여 뱃속으로부터 핏덩이리를 자신의 독거품과 함께 토해 놓았는데, 독의 모티브는 아이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모성의 발로로 볼 수 있다. 천지신명과 지신에게 자신의 아이가 다른

짐승이나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해를 입지 않게 해달라고 빌고 자기 나라로 갔다. 그러므로 완전한 인간의 형태로 출생한 것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되며, 그 토해놓은 핏덩어리를 먹은 두꺼비의 몸 속에서 완전한 인간으로 성장하였다.
낙의 독에 대한 내용은 C본 ⑮항에서 두꺼비의 전신이 마비되는 양상 외에 D본

	낭낙	출산과정	친자확인	구원자	와짜씻	암살위기	결혼	독립
A.아룬꾸만	O	인간	O	O	O	X	O	O
B.컴담본	X	X	X	X	O	O	X	O
C.승려본	O	피거품	O	O	O	O	X	O
D.톤부리본	O	알	O	O	O	전쟁	X	O

②항에도 나오는데, 짠타라차 왕이 함께 왕국으로 가서 살기를 권했을 때 낙은 자신은 인간 세상에 잠깐 놀러 나온 낭낙으로 "만일 (인간의) 궁에 가서 살다가 이런 저런 일로 화가 나면 (자신이) 독을 품게 되는데, 이 독으로 인간들이 모두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눈앞에서 사라졌다. 이로 보아 낙의 독은 매우 그 독성이 강해 인간을 죽게 할 수 있으며, 두꺼비를 등장시켜 설화의 신비성을 더해주고 아이도 살리고 있다.

(3) 범인과 다른 탁월한 능력을 타고났다.

모든 이본에 프라루엉은 와짜씻을 향유하고 있음이 나타나 있다. B본은 출생과 더불어 신이력을 갖고 태어났으나, ⑤항에 신이력이 나타난 시기가 11세라고 분명히 나와있고, D본에도 ⑧항에서 15세라고 나와 있다. 그러나, A본은 '자라면서'(⑨항), C본은 어려서부터(㉑-㉓항)으로 표현되고 있다. 특히 낙의 아들이 분명한 본에서는 빨리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이력, 즉 입으로 말하는 것이 순식간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신이력(와짜씻)을 프라루엉은 전생의 복으로 타고 난 것이다. B본 중 느어본은 (④항)에서 루엉이 전생에 마트랑이라는 열매(과일)로 음료수를 만들어 불타에게 바친 공덕으로 와짜씻의 능력을 받게 되었다고 구체적으로 와짜씻을 취득하게 된 원인을 설명하고 있으나 담롱본은 ④항에서 전생의 공덕이 높아 출생과 더불어 와짜씻의 능력을 가졌다고만 언급하고 있다.

(4) 어려서 기아가 되어 죽을 위기에 놓였다.

B본만 제외하고 모두 태어나자마자 기아의 위기에 놓인다. A본의 아룬 꾸만과 C본과 D본의 루엉은 출생과 더불어 버려진다. A본에서와 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출생한 경우 난생이 보편적인 낙의 세계에서 인간의 아이를 임신한 낭낙은 혹시

인간의 모습으로 낳을 경우 낙들이 해치지 않을 가 하는 우려에서, 또 낙 왕국의 공주가 인간의 아이를 낳아야 하는 수치심에서 인간인 남편과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가서 아이를 낳고 버린다. 이 때에 남편으로 받은 정표를 옆에 두고 갔으므로, 이 정표를 계기로 친자확인이 가능해지고, 결국에는 그 아이가 아버지를 만나게 한다(B본을 제외한 모든 본이 이점에서는 공통적이다).

C본에서는 인간의 아이를 임신한 낭낙은 남편이 약속을 어기고 데리러 오지 않은 데서 비롯된 배반감과 낙의 세계에서 인간의 아이를 낳아야 하는 수치심과 아이에 대한 안전성 등으로 아직 인간의 모습이나 알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 핏덩이를 거품과 함께 토해놓고, 자신의 세계로 돌아가 버렸다. D본에서는 알을 낳았는데도 사탕수수밭 그늘에 버리고 간다. 인간은 낙 왕국에서 살 수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5) 구출·양육자를 만나서 죽을 고비에서 벗어났다.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B본을 제외한 이본에서 루엉은 출생과 함께 버려진다. 이 위기를 울음소리를 듣고 온 사냥꾼(A본 ⑧항)에 의해 구출되어 양자로써 아버지(왕)를 만날 때까지 양육된다. 이 경우 사냥꾼이 구출자이며 동시에 양육자도 된다.

C본에서는 두꺼비가 1차 구출자로(⑭항), 노부부가 2차 구출자겸 양육자(⑱-⑳항)로 등장한다. 비록 낙의 독으로 무장을 하고 있으나 방어능력이 전혀 없는 핏덩어리는 피비린내를 맡고 쫓아간 두꺼비에게 먹히고 만다. 그러나 이 사실은 도리어 핏덩어리에게는 완전 노출의 상태에서 두꺼비에 의해 구출되어 온전하게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안식처를 찾게 된 결과를 낳게 했다. 두꺼비 탈속에 있었으므로 안전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말하는 두꺼비를 기른 노부부는 루엉을 기른 것이다. 어느 정도 성장하여 제 스스로 두꺼비 탈속에서 나와 길러 준 부부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밥상을 차려주게 될 정도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성장하였으며, 신이력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D본의 ④항과 ⑥항-⑦항에서도 역시 노부부가 구원자 겸 양육자로 등장한다.

(6) 자라서 다시 위기에 부딪쳤다.

성장하여 다시 위기에 노출되는 내용은 A본을 제외한 모든 설화에 나타난다. A본의 루엉은 어려서 왕인 아버지를 만나 왕자로써 성장하여 인근의 씨쌋차나라이 왕국의 공주와 결혼하는데, 굳이 위기를 들라면 아룬 꾸만을 입적한 뒤 왕은 정비 사이에서 아들(릇티 꾸만)을 낳는데, 이 두 아이가 성장하자 왕은 나라는 하난데 왕자가 둘이므로 궁리 끝에 아룬 꾸만을 딸만 있는 씨쌋차나라이 왕

국에 매파를 넣어 혼인시켜 떠나보낸다. 이 갈등을 매우 소극적이지만 위기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나머지 이본 모두에서 위기에 봉착한다. 한결같이 크메르 왕국(또는 인타쁘랏 왕국)에게 물 조공을 거절하거나 항아리를 가볍고 깨지지 않는 찰흙으로 만들어 보낸 신이력으로 인하여 크메르 왕으로부터 암살의 위기에 놓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위기를 투쟁으로 극복해서 승리자가 되었다.

A본을 제외한 모든 이본에서 크메르 왕의 암살을 예견하거나 소문을 들은 루엉은 미리 북부의 쑤코타이로 피신하여 승려로 출가한다. 출가한 사실만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힘들게 되었다. 암살자는 루엉이 출가하여 수행하고 있는 사원까지 따라 왔기 때문이다. 프라루엉은 자신의 능력인 와짜씻을 동원하여 암살자를 돌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슬기와 신이력으로 자기 자신의 위기는 물론 나라의 위기도 극복하고 마침내 독립하여 왕이 된다.

찰흙 화소가 없는 D본에서는 쑤코타이 왕국이 물 조공을 거부하자 후환을 없애기 위하여 종주국인 인타쁘랏 왕국이 공격하였으나 루엉은 신이력으로 단신·대항하여 승리하여 독립을 성취하고 부왕이 사망하자 왕위에 오른다.

III. 한·태 「영웅의 일생」 구조 비교

이상에서 본 바를 중심으로 한국과 태국의 「영웅의 일생」를 각 화소별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비록 세부적인 부분에서 다소 다른 사항이 있어도 대략적인 측면에서 비교하고자 한다.

1. 고귀한 혈통을 지니고 태어났다.

한국 신화 : 부계는 천제의 아들인 해모수와 수신의 딸인 유화를 모계로 했으므로 고귀한 혈통을 지니고 태어났다.

태국 신화 : 부계는 왕으로, 모계는 바단 왕국의 딸, 낭낙이므로 고귀한 혈통을 지니고 태어났다.(컴담본은 아버지가 관료이며 모계에 대한 언급은 없음)

2. 비정상적으로 잉태되거나 출생했다.

한국 신화 : 유화의 잉태가 태양에 의한 것으로, 또 주몽이 난생으로 나타나므로 잉태와 출생 두 부분이 모두 비정상적이다.

태국 신화 : 파충류인 낭낙이 인간을 출산한 것(A본), 난생(D본), 또는 거품상태(C본)의 출생으로 비정상적이다.

3. 범인과 다른 탁월한 능력을 타고났다.

한국 신화 : 주몽은 활 솜씨가 신기에 가까웠고 지혜와 무예, 힘이 출중했다.

태국 신화 : A본의 느어본을 제외하고 모두 와짜씻을 가졌다.

4. 어려서 기아가 되어 죽을 위기에 놓였다.

한국 신화 : 인간이 생란을 낳은 것이 상서롭지 못하다 하여 버려졌다.

태국 신화 : 출생과정이 없는 B본을 제외하고 모두 부모로부터 버림받아 출생직후부터 죽을 위기에 놓였다.

5. 구출 · 양육자를 만나서 죽을 고비에서 벗어났다.

한국 신화 : 들이나 동물 우리, 길에 버려도 동물들이 보호하였으므로 도로 유화에게 돌려져서 인간으로 태어나 어머니에 의해 양육되었다.

태국 신화 : 부모에게서 버림받은 아이나 알이 사냥꾼이나 노부부에 의해 구출되어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양자로 양육되었다.(B본 제외)

6. 자라서 다시 위기에 부딪쳤다.

한국 신화 : 부여국의 왕세자의 시기로 위기에 봉착하여 남쪽으로 도주할 결심을 하게 되고 도주 중에 건널 기구나 도구가 없는 강물을 만난다.

태국 신화 : 아룬꾸만 설화를 제외하고 와짜씻으로 인해 종주국의 군대나 암살자에 의해 추격(공격)을 받게 된다. 출가하였으나 출가만으로는 모면할 수 없었다.

7. 위기를 투쟁으로 극복해서 승리자가 되었다.

한국 신화 : 하늘의 도움으로, 또는 소극적인 자신의 힘으로 강을 건너 위기를 모면하고 마침내 나라를 세운다.

태국 신화 : 와짜씻의 힘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왕이 되어 영토를 확장하거나 종주국으로부터 독립한다.

이상으로 한국의 주몽 신화와 태국의 프라루엉 신화는 대체로 같은 화소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태국의 설화 중 프라루엉 설화는 모두 쑤코타이 왕국의 건국 시조인 씨인트라팃 왕에 대한 신화인데 반해 치앙마이 계열의 설화인 아룬꾸만 설화(A본)는 프라루엉이라는 어휘를 사용하지 않았고 결혼과 더불어 쑤코타이 왕국을 지배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특히 A본 계열의 설화는 중국과의 관계가 태국왕의 중국왕 알현과 중국 공주와의 결혼, 무역, 도공의 파견 등등으로 나타나 있다.

A본을 제외한 이본은 설화의 제목부터 프라루엉이 들어가 있어 프라루엉에 관한 설화임에는 분명하나, B본만은 태국의 중부이남, 즉 크메르 왕국의 영향권이었던 라워(롭부리)의 이야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C본과 D본은 크메르 왕국 또는 인타쁘랏 왕국의 종속국 시절의 쑤코타이 왕국의 이야기로 나타나 있다.

IV. 한·태 건국 신화의 유사성과 차이성

「영웅의 일생」 구조를 중심으로 우리 나라의 북방계 신화의 대표격인 주몽 신화(김대숙, 1996 참조)와 태국 북부왕국의 프라루엉 신화를 비교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유사성과 차이성을 추출해 내었다.

1. 유사성

(1) 국가의 창건 과정을 기술한 건국신화로 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다.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각각의 민족에게 정체성과 응집력을 부여하는 것을 각 민족이 갖고 있는 고유한 민족성과 언어와도 관련이 있겠지만 그 민족이 갖고 있는 신화도 사회적 접착제 역할을 한다. 공통의 역사와 공통의 상징 위에서 민족의 정체성이 확립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고구려 건국 신화인 주몽 신화는 주몽을 천손으로 설정하여 우리 겨레가 하늘의 자손임을 말해줌으로써 민족적인 자부심과 긍지와 함께 사회적 접착제 역할을 한다. 프라루엉 신화 역시 태국의 쑤코타이 왕국[3]을

3) 타이족들이 12-13 세기에 중국의 서남부로부터 원나라의 정복에 밀려 자유를 찾아 남하하였는데, 현 태국의 쑤코타이 이남은 크메르 제국의 지배 하에 있었다. 남하한 타이족들은 현재 태국의 북부 지역에 먼저 소왕국들을 형성하였고, 이중 치앙마이 왕국이 가장 강했고 크메르에 예속되지

건국한 씨인트라팃 왕에 대한 신화이다. 프라루엉은 종주국인 크메르 제국이나 인타뿌랏 왕국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자주독립 의지 또는 물을 조공품으로 바치는 치욕에서 벗어나고자 와짜씻을 사용하여 자신도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고, 아울러 나라도 구함으로써 타이족의 자주독립과 민족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라마 6세는 가장 인간적인 B본을 모체로 재구성하여 연극으로 만들어 공연하였다. 서양의 제국주의 팽창에 대한 정신무장의 차원에서 라마 6세는 왕의 자질과 왕권의 합법성과 정통성을 국민에게 주입시킴으로써 국민을 계몽하였다.

A본, C본, D본에 나오는 나라들이 크메르 왕국의 영향이 약하거나 거의 미치지 못했던 태국의 북쪽에 위치한 데 비해 B본의 라워(롭부리)는 태국의 중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북부의 쑤코타이 지역에 비해 크메르의 영향을 보다 더 강하게 받았고, 크메르 왕국에 예속된 변방국가였던 입장을 감안한다면 독립 화소가 더 강하게 작용한 것을 당연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 독립 화소는 A본에도 나타나는데, 크메르 왕국이 아니라 중국에 대한 독립화소로 나타난다. 이는 타이족이 남하하기 직전에 거주했던 지역이 중국 서남부 지역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며, 또한 역사적으로 타이족의 인도차이나 반도로 향한 남하는 중국(원나라 징기스칸)의 영토확장 정책과 전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인의 서진정책에 밀려 예속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타이족이 자유와 독립을 찾아 살던 곳에서 떠나 중국의 영향력을 피해 남하한 것이다.

(2) 고귀한 혈통으로 이미 출생과 함께 영웅성과 신성성이 암시되어 있다.

주몽은 천제를 부계로, 수신을 모계로 하는 등 혈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범상치 않은 고귀한 혈통을 지님으로써 그 잉태와 출생으로부터 이미 영웅임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천상계와 지상계를 자유롭게 왕래하는 주몽, 즉 신이면서

않은 독립국이었다. 치앙마이 이남에 세워진 국가들은 크메르에게 예속되어 외교권을 박탈당한 채 자치권만 인정받았고, 3년에 한번씩 종주국에 조공을 바쳤다.
쑤코타이와 부근의 씨쌋차나라이는 본래 타이족이 세운 소왕국이었으나 크메르 제국과 힘겨루기에서 패배하여 크메르 제국에게 빼앗겼다. 국가를 다시 탈환하려는 계획을 세워 성공한 타이족이 쑤코타이에 다시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세워 북쪽에 인접한 치앙마이 왕국과 형제의 의를 맺고 상부상조하면서 독립을 유지하였다. 이 때가 13세기 초이다. 쑤코타이 왕국은 같은 타이족이 1350년에 남쪽에 세운 아유타야 왕국에 합병되었으며, 1767년에 아유타야 왕국이 미얀마에게 멸망하자 그 유민들이 같은 지역에 톤부리 왕국을 세워 미얀마로부터 독립을 쟁취했다. 1782년에는 톤부리 왕국의 장수이자 톤부리 왕의 죽마고우인 라마 1세가 신하에게 추대되어 왕위에 올랐고, 라마 1세는 수도를 방콕으로 옮 겼다. 치앙마이 왕국은 북부에서 때때로 아유타야나 방콕(현 왕조)에 예속되다가 약 200여년 전에 방콕 왕조에 합병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쑤코타이 왕국은 태국의 북부에 타이족이 세운 최초의 통일 국가이다. 쑤코타이 왕국 이후의 왕국은 그 수도가 모두 남쪽에 있다. 쑤코타이를 합병한 아유타야 왕국은 처음부터 크메르 문화를 받아들임으로써 쑤코타이 문화와는 매우 다른 문화를 형성하였으므로, 현재까지도 북부 및 북동부의 문화와 중남부의 문화와는 차이가 난다.

인간이고, 인간이면서 신적 존재인 주몽을 설정하여 우리 겨레가 하늘의 자손임을 말해주고 있어 민족적인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고 있다.

태국의 경우도 부계는 대체로 왕 또는 한 지역을 지배하는 통치자로 제시되고 수신계의 상징적 지하동물인 낙을 모계로 제시함으로써 역시 범상치 않은 인물의 출생을 예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프라루엉을 낭낙의 아들로 설정함으로써, 또 불타로부터 전생에 받은 와짜씻으로 크메르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타이족이 자주성과 자유를 사랑하는 민족적 자긍심을 일깨워주고, 아울러 토속신앙과 불교문화의 접합성도 볼 수 있다.

또한 낭낙이 올라와 즐긴 곳, 또 왕이 수행을 목적으로 가거나 쉬러간 곳이 모두 '카오루엉' 또는 '카오야이'[4]로 되어있어 이 산도 예사 산이 아니라 주몽 신화의 웅심산과 같은 신계(비인간계, 천상계)와 지하계가 통하는 신성한 장소임을 암시한다. 깊고 신성한 산 속도 신의 세계가 될 수 있기(김열규 1985: 5-6) 때문이다.

(3) 천상계(지하계)와 지상계의 순환구조를 갖는다.

주몽 신화는 천상계와 지상계의 순환구조를 갖는다. 주몽을 탄생시켜 건국 위업을 달성할 목적으로 지상에 내려온 해모수는 유화와 결혼한 후 다시 천상계로 돌아간다. 그 후 해모수는 햇빛의 모습으로 지상에 내려와 유화를 잉태시킨다. 이것은 해모수가 천상계→지상계→천상계→지상계→천상계로 반복되는 순환양상을 의미한다. 주몽의 일생도 본래 천손이므로 지상계에 살다가 건국의 위업을 달성한 후 천상계로 다시 돌아가는 순환양상을 보인다. 이처럼 등장 인물이 자유롭게 천상과 지상을 왕래한다.

프라루엉 신화도 인간이 갈 수 없는 신의 세계동물인 낭낙이 지하계에서 지상계로 올라와 왕과 혼인한 뒤 다시 지하계로 갔다가 프라루엉의 출산을 위해 지상계로 올라왔다가 출산 후 다시 지하계로 돌아가는데, 이처럼 자유롭게 지하계와 지상계를 왕래할 수 있는 인물이 부계인물이었던 주몽 신화와 달리 프라루엉의 경우는 모계인물로 설정되었다. 이는 우리나라가 유교권의 가부장적 남성중심 사회였음을, 태국은 여성중심의 모계사회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구조는 고난을 극복한 자만이 왕이나 영웅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외에 우리 겨레는 물론 타이족이 인내심과 고난을 극복하는 극기심이 있는 민족이라는 자긍심과 자존심을 갖게 해 줌으로써 민족의 정체성을 형성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

4) '카오'는 산이라는 보통명사이나 '루엉'은 'Royal'의 뜻을 기본으로 하여 '왕'을 의미하거나 매우 중요하여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야이'도 '크다'는 의미로 산이 깊고 산세가 빼어난 명산임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카오루엉"이나 "카오야이"는 모두 명산임을 말한다.

(4) 왕(지도자)의 자격에 대한 의식이 같다.

주몽은 신기에 가까운 활 솜씨를 어렸을 때부터 나타내어 위기를 활 솜씨나 적어도 활을 사용하여 물을 치는 등의 방법으로 극복하였다. 활 솜씨 외에 지혜도 출중했고 힘도 좋았다.

프라루엉은 와짜씻이라는 신이력을 가졌는데, 성장하면서 그 능력도 강해졌다. 이 능력은 전생의 높은 공덕에 대한 대가로 불타로부터 받은 것이다.(Kromsillapakorn 1958: 6-18) 프라루엉도 역시 지혜가 출중했고, 통치자로서의 힘과 능력 외에 왕(지도자)답게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돋보인다.

예사 사람이 갖지 못한 신이력이 왕이 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 왕은 보통 사람과는 다른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으며, 이는 왕권과 왕의 자질에 대한 문화적 가치관을 나타낸다고도 볼 수 있다. 아울러 왕의 역할과도 관계가 있다. 왕은 독립을 유지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소유하고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5) 농업을 중시하는 사회이다.

주몽신화나 프라루엉 신화는 각각 모계를 수신계 여성, 즉 하백녀의 딸 하백과 바단왕국의 딸 낭낙으로 설정함으로써 문화적으로 농업을 중시하는 사회임을 말하고 있다.

(6) 주몽이나 프라루엉 이전에도 왕국이 있었다.

주몽이나 프라루엉의 출현 이전에 부모의 혼례과정이 기술된다는 것은 시조왕이 개국한 국가가 이 지상의 처음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주몽은 천제와 하백녀의 자손으로 금와왕의 동부여에서 성장하였으나 동부여를 탈출하여 독립왕국을 건국한 존재이다. 주몽은 투쟁을 통하여 자신의 집단을 확장하였고 확장된 새 국가의 통치자가 된 것으로 새로운 왕으로 추대된 것이 아니다.

프라루엉은 인간(왕)과 낭낙의 자손으로 인간의 나라에서 성장하여, 이웃 나라의 공주와 결혼하기도 했다. 장인이나 부왕이 사망한 후 왕이 되기도 하고, 이웃한 왕국을 정복함으로써 왕이 되기도 한 사실로 보아 이미 쑤코타이 왕국 이전에도 많은 나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왕이 된 후 더 강하고 방대한 영토를 가진 쑤코타이 왕국의 통치자가 되기 위해 더 강한 종주국과 싸워 독립을 획득하거나 영토를 확장하여 강국이 되었다. 결혼과 자연스러운 합병 등 평화로운 방법에 의한 영토합병도 나타나고 있다.

2. 차이성

(1) 주몽 신화에는 남성중심의 사회가, 프라루엉 신화에는 여성중심의 사회가 나타나 있다.

주몽 신화는 주몽을 탄생시켜서 건국의 위업을 달성하겠다는 성스러운 목적을 가진 이야기이므로 해모수가 천상에서 내려와 유화와의 결혼을 원했으나 하백의 반대로 혼사장애가 나타났다. 그러나 하백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함으로써 그의 신적 신분과 능력이 인정되어 결혼을 허락 받는다. 프라루엉 신화는 이러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고 낭낙이 홈모하여, 또는 낭낙의 자태와 솜씨에 반하여 왕과 자유롭게 혼인한다.

이것은 양 민족의 결혼관에 대한 문화적 차이를 보이는 것이라고 추측해본다. 유교적인 사회의 고정관습에 얽매인 결혼보다 불교사회의 자유로운 결혼관습을 대변하고 있어 매우 대조적이다. 유화가 마음대로 중매도 없이 남자에게 몸을 맡겼다는 이유로 아버지로부터 내침을 받은 데 비해 프라루엉의 부모는 자유롭게 교접하고 상대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롭게 형편과 마음에 따라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다.

(2) 왕권에 성격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

모든 이야기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갈등-해결순차로 구성되어 있다. 주몽은 신이력(괴력 또는 활솜씨) 때문에 성장하면서 위기에 봉착한다. 주몽의 위기 극복은 자력과 타력에 의하여 극복되는데, 논형계→위서계→구삼국사로 이행되면서 타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줄어들고 자력극복이 많아져 자력극복의 양상이 강조되고 두드러진다. 구삼국사에서는 신이력의 사용이 더욱 두드러지며 지혜의 사용도 강조된다. 특히 흰사슴을 잡아 해원에 거꾸로 매달고 그 사슴의 울음소리를 빌어 비를 내리는 방법은 제법 주술적이기까지 하다. 극복 양식도 화해보다는 명백한 승패를 가리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국가의 건국자이므로 승리가 더 강조될 필요성 때문일 것이다.

프라루엉의 경우는 자신의 타고난 신이력, 즉 전생의 공덕에 대한 상으로 출생과 더불어 갖고 있는 와짜씻과 지혜로 고난을 극복한다. 성장한 이후는 모든 고난을 자력으로 극복한다.

이런 점에서 주인공이 갖는 능력의 차이가, 다시 말해 주몽의 활 솜씨는 프라루엉의 와짜씻보다 인간적이고 한계성을 갖는다. 프라루엉은 힘을 쓰거나 몸을 움직일 필요가 없이 입으로 말만하면 이루어지는 신과 대등한(?) 능력을 가졌다. 다시 말해, 주몽의 신이력은 다소 인간적이고 주술적인데 비해 프라루엉의 신이

력은 신과 거의 대등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당시 태국문화, 즉 왕의 신권사상과 불교의 업보사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3) 나라 건국과 영토확장의 방법에서 다르다.

프라루엉 신화는 결혼과 나라 건국 및 영토확장이 서로 관련되어 있다. 결혼이 영토확장의 한 방법으로 나타나 있다. A본에는 딸만 있는 인근 국가의 공주와 결혼 후 장인의 사망하자 왕위에 오른다. "딸"이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여왕이 전혀 없는 태국문화를 엿볼 수 있게 해 준다. B본은 백성의 추대로 왕위에 오르고, D본은 부왕의 사망으로 즉위하였다. 그러나, C본은 부왕의 재임시에는 선대 왕이 왕국을 세웠었으나 당시는 황폐해졌던 곳에 가서 나라를 일으켜 다스리다가 부왕이 사망하자 부왕의 뒤를 이어 즉위하고, 자신이 다스리던 나라를 합병하여 영토를 확장하는 형태가 나타나 있다. 타이족 국가끼리 혼인, 강한 나라 중심의 합병, 자발적 예속에 의한 국가 병합의 형태가 나타나 있다.

주몽 신화의 경우는 반드시 그렇지 않아 나라 건국과 영토확장에서 결혼이 부수적, 임의적이다.. 대체로 힘에 의한 정복으로 영토를 확장해야 했던 우리 선조들의 문화에서 주몽 신화에서는 해모수와 유화의 결혼보다는 주몽의 탄생과 그 역할이 더 영웅적으로 강조되는, 강하고 지혜로운 지도자인 주몽의 고구려 건국과 치세에 주된 역점을 두고 있는 점으로 보아 북방계 신화의 성격이 강하다. 프라루엉 신화의 경우도 아유타야의 건국 신화인 타우쌘뿜[5]에 비해 프라루엉의 출생과 그 영웅적 기능이 더 강조되고 있는 점에서 주몽 신화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

5) 2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한 왕국의 공주가 가지를 먹고 싶어했는데, 쌘뿜이 자기의 오줌으로 재배한 가지를 먹고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공주의 아버지는 사위를 찾고자 여러 방법을 시도한 끝에 손자가 음식을 받아 먹는 사람이 사위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시행한다. 손자는 쌘뿜의 찬밥덩이를 먹는다. 왕은 사위가 천한 신분에 못생긴 것에 화가 나 딸 가족을 나라에서 추방한다. 쌘뿜 일가는 산 속에서 온갖 고초를 겪다가 신의 도움으로 요술북을 얻게 되고, 그 북으로 자신의 모습도 바꾸고, 나라도 건설한다.(승려본)
또 하나는 한 나라의 공주의 미모에 대하여 인근 국가까지 소문이 났다. 왕자는 그 공주를 얻기 위하여 매파를 넣었으나, 무남독녀를 둔 왕은 왕자의 나라가 자기의 속국이 되는 조건을 제시함으로서 좌절된다. 왕자는 쌘뿜으로 변장하고 공주가 있는 왕국으로 잠입하여 왕궁으로 보내는 채소를 재배하는 농원에 가서 일을 한다. 그 곳을 구경나온 공주에게 쌘뿜은 첫눈에 반하여 가지 껍질에 연애시를 써서 공주에게 바친다. 공주를 답시를 주고받다가 사랑을 확신한 왕자는 몰래 공주방에 들어가 사랑을 나눈다. 갑자기 부왕의 위독 소식을 접한 쌘뿜는 공주를 데리고 가지 못하고 혼자서 본국으로 간다. 공주가 임신을 했고 아들을 낳았다. 공주의 아버지는 사위에 대해 궁금했으나 알아 낸 것은 공주가 가지를 먹고 싶어해서 많이 먹었다는 사실뿐이었다. 쌘뿜은 사위 찾는 방법에 대한 소문을 듣고 변장한 뒤에 공주의 나라로 가나 이번에는 반드시 공주를 데리고 올 생각으로 군사를 데리고 와서 왕궁 근처에 매복시키고 북소리가 나면 함성을 지르며 나오라고 한다. 마침내 손자가 음식을 받아먹게 하는 방법으로 사위를 알아내었으나 사위의 천한 신분과 모습을 본 왕은 대노한다. 이때 쌘뿜은 왕에게 도전한다. 북만 치면 많은 병사를 불러낼 수 있다고 한다. 이를 믿지 못하는 왕은 결국 내기를 하게 되어 쌘뿜이 승리한다. 쌘뿜은 가족을 데리고 본국에 와서 왕위를 계승하였다(빠라마누칫치노롯 대군본).

(4) 뱀(낙)의 화소가 주몽 신화에는 없다.

주몽 신화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 낙(뱀) 화소가 프라루엉 신화(B본 제외)에 나타나 있다. 뱀은 동서양 모두에서 신성한 존재로 재생을 통한 불사의 존재로 간주된다. 뱀은 달과 함께 물과 가까우며, 특히 뱀은 많은 알, 또는 새끼를 낳는다는 성격 때문에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 된다. 뱀은 大女神의 속성인 대지적 성격과 결부되어 月的 성격을 지닌다. 그래서 달-물-풍요-여성-뱀-죽음-주기적 재생이라는 고리는 신화적 상징으로 동서양에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다. 남방계신화가 달과 짝을 이루며 해와 말로 이어지는 북방계 신화와 대비된다는 점(김대숙 1996: 42-45)에서 볼 때, 또 D본에 난생이 나타난 사실과 함께 생각해 볼 때 프라루엉 신화는 여성이 남성을 찾아 움직인다는 점, 그리고 일부의 난생본과 함께 남방계 신화의 성격도 갖는다.

(5) 무속에 대한 화소가 프라루엉 신화에는 없다.

한국 전통문화의 근저에는 무속이 자리잡고 있다. 고대국가의 왕은 지배자이면서 제사장을 겸한 제정일치의 군주였다. 주몽도 송양왕과 겨룰 때 흰사슴을 잡아 해원에 거꾸로 매달고 그 사슴의 울음소리를 빌어 비를 내리게 한 방법은 주술적이고 무속적이다.

그러나, 프라루엉 신화에는 불교적 요소가 더 나타나 있다. 프라루엉의 신이력인 와짜씻이 전생의 업보에 의한 것으로, 출생과 더불어 타고난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전생의 공덕으로 왕이 된다는 불교적 업보 가치관과 운명적인 가치관과 맞물려 함께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외에 루엉이 구걸식을 하며 북부로 피신할 때 구운 고기의 살만 발라먹고 뼈를 물에 놓아주고 다시 생명을 갖게 하는 점, 또 적당한 연령이 되면 출가하는 불교문화가 나타나 있다.

(6) 문화적 차이가 있다.

신화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등장인물인 신이고, 이들의 행동, 즉 신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움직였는가에 따라 신들의 성격이 정해진다. 한국신화는 남성신이 상대역인 여성신을 찾아 움직이는 것으로 서술되는데 이러한 점은 남성측 집단이 그 상대집단을 정복하여 지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되어 왔다. 주몽 신화도 이러한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프라루엉 신화에서는 낭낙이 왕을 찾아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주몽 신화와 다르게 남방 신화적 요소가 강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Ⅴ. 결론

신화는 문자로 기록된 역사 이전에 일어났음직한 일들을 우리에게 전해 주는 역사 이전의 역사이다. 신화는 대개 구전문학이다. 신화는 도덕성과 통치방식과 민족정체성의 토대였으며, 이러한 성향은 아직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건국신화의 주인공은 나라의 시조이면서 나라 전체의 상징이며 자랑이라는데 대한 합리적인 반론이 아직까지 제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신성시되는 이야기'인 신화는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매우 힘든 일이다. 그러나 '신성성'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위대하거나 숭고한 행위로 성립되며, 아울러 이 행위는 특이하여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난생, 기아, 짐승의 보호, 표류, 불가능에 가까운 시련의 극복, 거대한 승리 등이 일어난다. 이러한 이야기가 한 국가의 창건군주에 관한 이야기로 민족적 차원에서 전승되며, 국가적인 범위에서 그 신성성이 인정될 때는 건국신화라 할 수 있다. 신화의 세계에서 모든 민족은 인류라는 공통분모 위에 존재한다. 비록 그 수와 질에서 빈약하다는 감을 준다해도 어떤 한 민족에 관한 신화의 우월성 내지 열등성 논의는 불가능하며 무의미한 일이다.

주몽 신화는 민족의 정체성과 자긍심의 고취라는 민족주의적 차원에서 논형계→위서계→구삼국사로 이행되면서 정치성이 점점 가미되어 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프라루엉 신화도 역시 타이족 최초의 왕국인 쑤코타이 왕국의 건국 시조인 씨인트라팃 왕에 대한 신화로, 타이족의 정체성이 잘 나타나 있다. 특히 크메르 제국에 예속되어 있다가 와짜씻과 지혜로 독립을 이룬 타이족의 우월성과 독립에 대한 타이족의 정체성이 잘 나타나고 있다.

주몽 신화는 프라루엉 신화와 「영웅의 일생」 구조에서 거의 일치하고 있다. 두 신화를 비교 검토한 결과를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한국과 태국의 건국 시조는 모두 선천적으로 영웅의 기질을 타고났다. 둘째, 두 영웅은 보통 사람이 아닌 고귀한 혈통, 다시 말해 신의 아들로 지상계와 천상계(지하계)를 자유로 왕래할 수 있다. 셋째, 그러나, 주몽은 신격을 갖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성장 과정과 건국 과정에서 겪는 고난과 위기를 운명적으로 받아들여 주술적, 비폭력적 방법으로 자력 극복하는데 비해 프라루엉은 운명적으로 봉착한 고난과 위기를 자력이지만, 모두 거의 신과 대등한 능력인 와짜씻으로 극복한다. 왕권의 신성에 대한 개념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나 더 덧붙인다면 북방계 신화의 전형이라는 주몽신화와 비교할 때는 프라루엉 신화는 남방계 신화의 성격이 있고, 같은 태국 내 아유타야 왕국(1350-1767)의 건

국시조라는 '타우쌘뿜' 신화와 비교하면 북방계 신화의 성격이 보다 강하다는 점이다.

주제 용어 : 건국신화, 태국신화, 주몽신화, 프라루엉신화, 신화비교

참고문헌

김대숙. 1996. "한국신화와 문화의 기원". 『한국사회사상사논총』. 이은순교수 화갑기념. 지식산업사.

김열규. 1971. 한국민속과 문학연구』. 일조각.

김열규. 1985. 한국의 신화』. 일조각.

김태곤 · 최운식 · 김진영. 1988. 『한국의 신화』. 시인사.

박정혜 · 심치열. 2001. 『신화의 세계』.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서대석. 1997.『한국의 신화』. 집문당.

조동일. 1971. "영웅의 일생, 그 문학사적 전개." 『동아문화』, 제 10집.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동아문화연구소.

최남선. 1983.『조선의 실화와 설화』. 홍성사.

황패강. 1988.『한국의 신화』. 단대출판부.

Kromsilapakorn. 1958. Phrarajphongsawadanneua(북부연대기)』. 프라야씨피팟랏따나꼬싸 티버디의 장례기념문집. 방콕.

Chiangmai University. 1975.『Peunthankanan Wannakhadi Thai(태국문학에 대한 이해)』 Chianmai: Chiangmai University Press.

Damrongrajnuphab, Krom. 1966.『Reuang Phraruang(프라루엉)』, 위파펀 푸미찟 장례기념문집, Bangkok.

David K. Wyatt. 1994.『Studies in Thai History』. Chiangmai: Silkworm Books.

David K. Wyatt. 1984.『Thailand』. Ithaca: Yale University Press.

Dhida Saraya, 1982.『Tamnan & Tamnan History : A Study of Local Histor

y』. Bangkok : National Culture Commission.

Monchai Thewanwaropakon. 1983. 『Plig Prawaddisad Sukhothai(쑤코타이사 일별)』. Bangkok : Chaophrayakanpim.

Muangboran. 1989. 『Pangban(옛날옛적에 : 태국설화와 역사이야기 모음집)』. Bangkok : Muangboran Press. National Library of Thailand. n.d. 『Prachoom Phongsawadan Phak thi 1.(연대기 모음 1)』. Bangkok.

Prakhong Nimmanhemin. 2000. 『Nithanpheunbanseuksa(민담 연구)』. Bangkok : Chulalong korn University press.

Pramongkutklaochaoyoohua(RAMA VI). 1999. 『Bod LakornPhoot khamklon Phraruang(프라루엉)』. Bangkok : Bannakij.

Somsri Chaiyawanichaya. 1993. 『Khati Kuamcheua ReuangPhraruang nai nganklhien Prawaddisad thai Tangtae Rachakan ti 1 teung Rachakan ti 6(불력 2325-2468)〈라마 1세-6세 (1782-1925)〉 당시의 태국역사문학과 프라루엉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씨나카린위 롯대학교 대학원 역사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Thanakid. 1996. 『50 Nithanthai(태국설화 50편)』. Bangkok : Sudwiriyasan.

Thida Siraya.1986. 『Prawaddisad Thongthin(지방민속사)』. Bangkok: Dansudthakanpim.

A Comparative Research on the Korean Jumong Myth and the Thai Phra Ruang Myth

Young-aih Kim

This is a comparative research on the korean Jumong myth and the thai Preruang myth, which both have been transmitted from mouth to mouth before the prehistoric era and also have established national identity as well as norms of social morals and culture. Therefore, nobody has ever raised rational refutation against the idea about main characters of myth which was the symbol and glory of the nation.

Just like the Jumong myth has been more national, political and inspiriting the national identity according the era, the Phraruang myth, which is a legend about the King Sri-Intradit, the first thai Kingdom, Sukhothai, has also shown more national characteristics. Especially it shows the superiority of the thai that have won independence from the Empire of the Khmer by Wajasit and national wisdom.

Judging Jumong and Phraruang from the point of view as a hero or the hero's life, the two myths are very coincident both in contents and roles. The researcher has gained some next conclusions from comparing and analyzing the two myths. First, the founders of the two nations have a character of hero by nature. Second, the two heroes, the sons of God, can have a intercourse from earth to underground or heaven freely. Third, Jumong, inspire of his divinity, accept nonviolently and magically, and overcomes many hardships and difficulties by himself during growth and founding the nation; on the other hand Phraruang overcomes hardships and difficulties by himself, but by Wajasit, an ability which almost equals God. It shows the difference of the idea about royal power or the kingship between the two nations. Finally, Phraruang myth is more south mythical as compared with Jumong myth, but it is more north mythical with Taosaenpom myth, the legend about the founder of the kingdom of Ayuthia, the second kingdom of Thailand.

Key words : comparative research, thai myth, Phra Ruang myth